

## Sermon: The Truth about Antarctica

### ■ 오늘의 본문말씀 : 요한복음 8:32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Everyone is welcome to worship with Incheon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Today's main verse is John 8:32.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8:32절입니다.

『John 8:32』<sup>32</sup>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요한복음 8:32』<sup>32</sup>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 1 Introduction 서론

A few weeks ago, one brother who loves our Lord Jesus so much, asked me a question like this: 몇 주 전,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형제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Is it true that the Earth is flat?”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He was almost persuaded by the video which asserts that the Earth is flat. 그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보고 그 주장에 거의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He continued to say,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The idea of a spherical earth might be one of the biggest lie like evolutionism. 둥근 지구는 진화론과 같이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It is most likely that the Earth is a disk surrounded by ice wall of Antarctica. 지구는 남극 빙벽에 둘러싸여 있는 원판인 것 같습니다.”

So, I replied to him that the earth is not flat by giving him information about Antarctica. 그래서, 저는 남극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고 그에게 응답했습니다.

Although most of you don't know, there are plenty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genuinely believe that the earth is flat.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구가 평평하다고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Flat earth theory is an archaic conception the earth is shaped as a plane or a disk. 평평지구론은 지구가 평면 혹은 원판처럼 생겼다는 고대의 생각입니다.

The idea was first raised in ancient cultures, including the Romans. 이 생각은 로마를 포함한 고대 문화에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The theory is generally accepted as being disproved by Aristotle in 330 BC, but the idea of the earth being a sphere was suggested by Pythagoras in the 6th century BC. 이 이론은 기원전 330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오류임이 증명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구가 구체라는 개념은 기원전 6세기에 피타고라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However, the flat earth theory still holds weight today with some sects in society such as the Flat Earth Society. 그렇지만, 평평지구론 평평지구학회와 같은 학파가 있을 정도로 아직도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Modern flat earth theories believe that the earth is a disk surrounded by mountains or a wall of ice. 현대의 평평지구론은 지구가 산이나 빙벽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믿습니다.

And most, if not all, flat earthers also believe that there is a glass dome over a flat earth. 또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평평지구론자들은 평평한 지구 위에 둥근 유리천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hey believe the end of the earth is found beyond ice wall of Antarctica.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지구의 끝은 남극대륙의 빙벽 너머에 있다고 믿습니다.

They believe the earth being round is a lie put out by governments - making it into a conspiracy theory. 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정부에 의해 심어진 거짓말이라고 믿으며, 둥근지구를 음모론화 하고 있습니다.

Many flat earth theories rely on false interpretations of biblical literature, which provide the basis for the beliefs. 많은 평평지구론자는 성경 문헌에 대한 옳지 못한 해석을 믿고 있으며, 그것이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conspiracy theory has risen to prominence recently as social media has provided a platform for flat earth theories to be shared and discussed. 최근에 소셜미디어가 평평지구론이 활발히 공유되며 화제가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면서 최근 음모론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The Truth about Antarctica” to prove a spherical Earth and also to reveal the past and future of the Earth by asking four questions about Antarctica. 따라서 저는 오늘 “남극에 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구가 구체임을 증명하는 동시에 남극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지구의 과거와 미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here at IIBC this morning. I sincerely pray that you would illuminate our minds and grant us wisdom in order that we would be made free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 2 Is Antarctica an ice wall? 남극대륙은 빙벽인가?

The first question is “Is Antarctica an ice wall?” 첫째 질문은 “남극대륙은 빙벽인가?”입니다.

As far as I know, all members of IIBC would think that this is a very silly question. 제가 아는 한, IIBC의 모든 교인들은 이것이 아주 바보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Anyway, the best way to answer this question is just to go and see Antarctica. 어쨌거나, 이 질문에 대한 최고의 대답은 그냥 가서 남극대륙을 보는 것입니다.

According to Jim Dobson who is a Senior Contributor in Forbes, there have been 16 journeys across portions of Antarctica throughout the years, with expeditions such as Borge Ousland's 1997 kite expedition. 포브스 선임 기고자인 짐 돕슨에 따르면, 보르게이 아우스란의 1997년 카이트 탐험대와 같이, 일년 내내 남극대륙의 일부를 횡단하는 탐험이 지금까지 16건 있었다고 합니다.

Between 15th November 1996 and 17th January 1997, Borge Ousland 보르게이 아우스란 who is a Norwegian, became the first in the world to do an unsupported solo crossing of the Antarctic: 1,864 miles from the edge of the Ronne Ice Shelf to the edge of the Ross Ice Shelf. 1996년 11월 15일 부터 1997년 1월 17일 까지, 노르웨이 출신의 보르게이 아우스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남극대륙을 누구의 지원을 받지 않고 빙봉 끝에서 부터 로스 빙봉 끝까지 3,000킬로를 횡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The ski journey was made with kite assistance, and also holds the record for the fastest unsupported journey to the South Pole, taking just 34 days. 카이트 원조대로 스키탐험이 이루어져서 남극까지 단 34일 만에 도달함으로써 가장 빠른 도움없는 탐험기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In 2012, Felicity Aston became the first woman to ski alone through parts of Antarctica. 2012년, 펠리시티 아스톤은 남극대륙 일부를 홀로 스키로 횡단한 최초 여성이 되었습니다.

And in 2018, Colin O'Brady completed his solo, unsupported and unaided crossing of Antarctica in a 54-day journey. 2018년에, 콜린 오브라디는 남극대륙을 54일 만에 무도움 단독 횡단을 마쳤습니다.

He asserted that it was the world's first solo, unsupported and completely human powered crossing of the landmass of Antarctica. 그는 광활한 남극대륙을 원조 없이 인간의 힘으로만 단독 횡단한 최초의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However, according to Aaron Teasdale, O'Brady is embellishing his accomplishments in pursuit of fame. 하지만, 아론 테스데일에 따르면, 오브라디가 명성을 얻기 위해 자기의 업적을 과대포장한 것이었습니다.

Now, I would like to present an event about crossing Antarctica, which Koreans would be very proud of. 그럼, 이제 한국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러워 할 남극대륙 횡단 사례를 말해 보겠습니다.

Hyundai Motor has made history when a near-standard 2.2-liter diesel Santa Fe became the first passenger vehicle to be driven across the continent of Antarctica from Union Camp to McMurdo and back again. 현대자동차는 보통의 2.2리터 산타페 차량으로 유니온 캠프에서 맥머도까지 왕복함으로써 남극대륙을 횡단한 최초의 승용차가 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This completed the expedition abandoned by Sir Ernest Shackleton in 1916. 이것은 1916년에 어네스트 쉘클톤이 포기한 탐험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Shackleton's trip made such a historical mark because of his heroism in pulling off one of history's great rescues. 쉘클톤의 여행은 역사상 최고의 구조대를 이끌었다는 영웅담으로 인해 역사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The Santa Fe was driven by Patrick Bergel, the Great Grandson of legendary polar explorer, Sir Ernest Shackleton. 산타페를 몬 사람은 패트릭 베르겔이었는데, 그는 전설적 극지방 탐험가인 어네스트 쉘클톤의 증손자였습니다.

The journey which took place in December 2016 was timed to commemorate the centenary of Shackleton's heroic Trans-Antarctic expedition of 1914-16. 그 여행은 1914-1916년 쉘클톤의 영웅적 남극횡단 탐험 100주년을 기념에 맞추어 2016년 12월에 행해졌습니다.

The 30-day expedition saw the Santa Fe production vehicle, which was modified only slightly to fit giant low-pressure tires, take on almost 5,800 km of icy terrain in bitter conditions. 30일간의 탐험 동안, 커다란 저압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만 손을 본 산타페 차량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얼음으로 덮인 지형을 5,800km나 달렸습니다.

The only other modifications were to increase the fuel tank capacity, to convert the car to run on Jet A-1 fuel - the only fuel available on the continent and to install a pre-heater for the cold. 그 외 차를 손 본 것이라고는 연료탱크 용량을 늘리고, 극지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연료인 제트 A-1 연료를 쓸 수 있도록 바꾼 것과, 추위에 대비해 프리히터를 설치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This slide shows the pathway of Santa Fe to be driven across Antarctica from Union Camp to McMurdo and back again. 이 슬라이드는 유니온 캠프에서 맥머도까지 남극대륙을 왕복횡단한 산타페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r. Kim, Wan Soo who has written books about penguins, became the first civilian to circumnavigate Antarctica 10 times as of March 2017. 펭귄에 대한 책들을 쓴 김완수 씨는 2017년 3월 현재 남극대륙을 10 번이나 일주한 최초의 민간인이 되었습니다.

His 10th expedition was a long Antarctic voyage that departed from Invercargill (Bluff Port) in New Zealand and arrived at Ushuaia in Argentina, South America. 그의 열 번째 탐험은 뉴질랜드 인버카길(블러프항)을 떠나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의 우샤이아로 돌아오는 긴 항해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it sailed for 32 days from East Antarctica to West Antarctica. 다시 말해서, 남극대륙 동쪽에서 남극대륙 서쪽까지 32일 동안 항해했습니다.

He was able to land and visit the Italian and German bases in Terra Nova Bay. 그는 테라 노바 베이에 있는 이탈리아와 독일 기지를 내려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Unfortunately, however, Korean Jangbogo base did not allow landing, so he had no choice but to look at it through Zodiac Cruise which means boat trip.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의 장보고 기지는 상륙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보트여행을 뜻하는 조디악(황도대) 크루즈를 통해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This article shows that a saildrone approaches Point Bluff, New Zealand, in stormy conditions after completing the first unmanned circumnavigation of Antarctica in early August 2019. 이 기사는 2019년 8월초에 한 드론이 최초로 남극대륙 일주 비행을 마치고 뉴질랜드 포인트블러프로 접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sailed more than 13,000 miles around the Southern Ocean in 196 days. 그 드론은 196일 동안 남쪽 바다 위를 20,921km 이상을 날았습니다.

By the way, Flat earthers assert that the distance of the coast of Antarctica is more than 60,000 km. 그런데, 평평지구론자들은 남극대륙 해안선의 거리가 6만km 라고 주장합니다.

So, taken all these evidences together, Antarctica is not an ice wall. 이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남극대륙은 빙벽이 아닙니다.

It is the highest, driest, coldest, windiest and brightest of the seven continents. 남극대륙은 일곱 대륙 가운데서 가장 높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춥고, 가장 바람이 많으며, 가장 밝습니다.

It is roughly the size of the United States and Mexico combined and is almost completely covered by a layer of ice that averages more than one mile in thickness, but is nearly three miles thick in places. 대략 미국과 멕시코를 합한 크기이며, 두께가 평균 1.6km 이상인 얼음으로 거의 완전히 덮혀 있는데, 곳에 따라서는 얼음 두께가 4.8km나 됩니다.

Presently, the Antarctic ice sheet contains 90% of the ice on Earth and would raise sea levels worldwide by over 200 feet were it to melt. 남극 얼음은 지구의 얼음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만일 남극 얼음이 녹는다면, 해수면이 61미터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By the way, it is sure that anyone can visit Antarctica from anywhere in the world.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세계 어디에서도 남극대륙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dozens of companies that can take you to Antarctica. 여러분을 남극대륙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수십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You can choose where to go in the Antarctic. 여러분은 남극 어디로 갈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ntarctic Peninsula, Polar Circle, Ross Sea, Falklands Islands, South Georgia, and South Pole are the most visited places for Antarctica cruises. 남극반도, 폴라 서클, 로스해, 포클랜드섬, 남조지아, 남극점 등이 남극대륙 크루즈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However, no flat earther has ever actually attempted an Antarctic expedition to prove a flat earth, although it has been said many times. 그러나, 말을 많았지만 지금까지 어느 평평지구론자도 평평한 지구를 증명하기 위해 남극 탐험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 3 Why do some Christians believe Antarctica is an ice wall?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극대륙이 빙벽이라고 믿을까?

The second question is “Why do some Christians believe Antarctica is an ice wall? 둘째 질문은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남극대륙이 빙벽이라고 믿을까?” 입니다.

From my experience and literature review, most flat earthers consider themselves very religious. 제 경험과 글들을 검토한 결과로 보면, 대부분의 평평지구론자들은 자신을 아주 종교적인 사람으로 여깁니다.

However, many flat earth theories rely on false interpretations of Bible verses, which provide the basis for the beliefs. 하지만, 많은 평평지구 이론들은 성경구절에 대한 옳지 못한 해석을 믿고 있으며, 그것이 믿음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some flat-earthers proclaim that the main issue is not the shape of the earth, but it's about whether people can understand the Scriptures. 이에 더해, 어떤 평평지구론자들은 문제는 지구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경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What they're implying is that if you don't believe that the Bible describes a flat earth, then you're not able to comprehend the Scriptures. 그 말은 만일 성경이 평평지구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당신은 성경구절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Nathan Roberts is the key person in the flat earth community who is proclaiming in his two books that there are more than 240 Bible verses which describe a flat earth. 나단 로버츠는 평평지구 커뮤니티의 중심인물인데, 그는 두 책에서 성경에 평평한 지구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240개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e says, 그는 말하기를, "All 240 plus verses point to a stationary and flat earth with a dome over our head. 240개가 넘는 구절 모두가 우리 머리 위에 둥근 지붕이 있는 정지되어 있는 둥근 지구를 가리키고 있다.

For anyone to state otherwise, and even publish a website, against this biblical truth is quite insane. 이 성경적 진리와 다르게 기술하는 사람,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

However, none of verses that are cited in his books prove that the earth is flat with a dome over it. 그러나, 그의 책에 인용된 구절 어느 것도 지구가 둥근 지붕을 가진 평평한 모양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Brother David Nikao did a pretty good job to refute Nathan Roberts. 데이빗 니카오 형제는 나단 로버츠를 훌륭하게 반박했습니다.

I highly recommend that all members of IIBC read the book titled "The False Doctrine of the Flat Earth" written by David Nikao. 저는 IIBC의 모든 교인들이 데이빗 니카오가 쓴 "평평지구의 거짓 교리"라는 제목의 책을 읽어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The most important and biggest problem about Flat Earth theory is false dichotomy created by the Devil. 평평지구론의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는 마귀가 지어낸 거짓 이분법입니다.

Satan has caused the debate to be between the heliocentric globe earth and the flat earth. 사탄은 태양중심의 구체 지구와 평평한 지구 사이의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So, people ignore the scientific findings of the geocentric globe earth which I dealt with in the sermon titled "The Truth about Space" two months ago. 사람들은 제가 두 달 전 "우주에 대한 진실"이라는 설교에서 다루었던 지구중심의 구체 지구에 대한 과학적 발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Bible verses describe geocentricity which means that the Earth is immovable, and lie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성경구절들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우주의 중심에 놓여있다는 것을 뜻하는 지구중심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Flat earthers agree that the earth can not be moved. 평평지구론자들은 지구가 움직일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However, they don't accept a spherical earth, because they regard it as the product of evolutionism. 하지만, 그들은 구체의 지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이 그것을 진화론의 산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So to speak, they don't understand the Tychonian system in which the Sun orbits the Earth

once per day and the other planets orbit the Sun. 말하자면, 그들은 태양이 하루에 한 번 지구를 돌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을 도는 신우주 체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With that being said, I would like to mention only one Bible verse to prove that Flat earthers are wrong. 이제 평평지구론자들이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et's read Isaiah 40:22 which is a key verse that flat-earthers cite. 평평지구론자들이 인용하는 중심구절인 이사야서 40:22절을 읽어봅시다.

『Isaiah 40:22』<sup>22</sup> [It is] he that sitteth upon the circle of the earth,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re] as grasshoppers; that stretcheth out the heavens as a curtain, and spreadeth them out as a tent to dwell in:

『이사야 40:22』<sup>22</sup> 땅의 원 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Flat-earthers proclaim that Isaiah knows the difference between a “ball” and a “circle,” 평평지구론자들은 이사야가 “구” 과 “원” 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so if he were describing a globe earth, then he would have used the word ball, not circle. 그가 구체인 지구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원”이 아닌 “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The Strong's Hebrew for the word “circle” is chuwg. “원”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스트롱 사전의 히브리어는 chuwg입니다.

The Strong's Hebrew word for “ball” is duwr. “구”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스트롱 사전의 히브리어는 duwr입니다.

The word ball is used in Isaiah 22:18, 구 라는 단어는 이사야서 22:18절에 사용되었습니다.

『Isaiah 22:18』<sup>18</sup> He will surely violently turn and toss thee [like] a ball into a large country: there shalt thou die, and there the chariots of thy glory [shall be] the shame of thy lord's house.

『이사야 22:18』<sup>18</sup> 참으로 너를 공같이 맹렬히 돌리며 큰 지역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네가 죽고 거기서 네 영광의 병거들이 네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되리다.

It's interesting that flat-earthers only give two options for Isaiah to use; a circle and a ball. 흥미로운 것은 평평지구론자들은 이사야가 사용했을 단어의 경우의 수를 원과 구, 두 개로만 한정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Anyhow, they regard the word “circle” in Isaiah 40:22 as a DISK which should be shown in a Flat Earth model. 어쨌거나, 그들은 이사야서 40:22절의 “원”이라는 단어를 평평지구 모델에서 보여지야 할 원반(얇고 납작한 원형물)로 간주합니다.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a circle and a disk. 그러나, 원과 원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A circle is a curved line, which has no area - just as a straight line has no area. 원은 둥근 선이며, 직선이 면적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A disk, however, is a round portion of a plane which has a circular outline. 하지만 원반은 평면의 둥근 부분으로 둥근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If you draw a circle on a sheet of metal and cut it out, the round piece is a disk. 얇은 금속 위에 원을 그려, 그 원을 잘라내었을 때 나오는 원형 물체가 원반입니다.

There's material in the middle of the circle, and it has height. 원의 가운데에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은 높이를 갖습니다.

Despite flat-earthers only giving the two options of circle and ball, 평평지구론자들이 원과 구의 두 선택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there's another Hebrew word that Isaiah could have used if he wanted to describe a flat disk

earth, the word “round.” 만일 이사야가 평평한 지구를 기술하려고 했다면 사용했을 수 있는 “둥근”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다른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The Strong’s Hebrew for the word “round” is ‘agol. “둥근”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스트롱사전의 히브리어는 ‘agol입니다.

A few verses use the word “round” to describe a 3D disk with height, which seems like a much better fit to describe a disk earth. 몇몇 구절은 높이를 갖는 3차원의 원반을 묘사하기 위해서 “둥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가 평평한 지구를 묘사하는 데 훨씬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Let’s read 1 Kings 7:23,35; 2 Chronicles 4:2. 열왕기상 7:23,35절과 역대기하 4:2절을 읽겠습니다.

『1 Kings 7:23』<sup>23</sup> *And he made a molten sea, ten cubits from the one brim to the other: [it was] round all about, and his height [was] five cubits: and a line of thirty cubits did compass it round about.*

『열왕기상 7:23』<sup>23</sup> ¶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한 쪽 가장자리에서 다른 쪽 가장자리까지가 십 큐빗이더라. 그것은 사방으로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오 큐빗이요, 삼십 큐빗 되는 줄이 그것을 돌아가며 둘렀더라.

『1 Kings 7:35』<sup>35</sup> *And in the top of the base [was there] a round compass of half a cubit high: and on the top of the base the ledges thereof and the borders thereof [were] of the same.*

『열왕기상 7:35』<sup>35</sup> 받침대 위에 높이가 반 큐빗 되는 둥근 테두리가 있었으며 또 받침대 위에는 그것의 가로대들과 테두리들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었더라.

『2 Chronicles 4:2』<sup>2</sup> *Also he made a molten sea of ten cubits from brim to brim, round in compass, and five cubits the height thereof; and a line of thirty cubits did compass it round about.*

『역대기하 4:2』<sup>2</sup> ¶ 또 그가 바다를 부어 만들었는데 그것의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가 십 큐빗이요, 그 둘레가 둥글며 그것의 높이는 오 큐빗이더라. 삼십 큐빗 줄이 그것을 돌아가며 둘렀더라.

The point I’m making is that Isaiah didn’t use the word “round,” which is the better word to describe a disk-shaped flat earth.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사야는 원반모양의 평평한 지구를 묘사하기에 더 좋은 단어인 “둥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nd he didn’t use the word “ball,” which points to a globe-shaped earth. 그리고 그는 구체의 지구를 나타내는 “구”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He used the word “circle” for a reason, as he is not describing the earth itself. 그는 이유가 있어서 “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는 지구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Isaiah 40:22 doesn’t say “circular earth,” it says “the circle of the earth.” 이사야서 40:22절은 “원형의 지구”를 말하지 않고, “지구의 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circle is the focus, not the earth. 원이 초점이지, 지구가 초점이 아닙니다.

The context of the verse shows that he is pointing to the ECLIPTIC CIRCLE in the expanse of the heavens, which surrounds the globe earth.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그는 구체 지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넓게 펼쳐진 하늘의 황도대의 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Isaiah 40:22 declares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re as grasshoppers,” which reveals that God’s viewpoint makes people look small, so we can see that He’s high above the earth; 이사야 40:22절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보면 사람들은 작게 보이며, 우리는 그분께서 땅 위 높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알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once again it proves that He is not sitting on a flat circle earth or a globe earth.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그분께서 평평한 둥근지구나 구체의 지구 위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It’s proclaiming that God the Father is in the heavens, as Psalm 2:1,4 says, 그것은 시편 2:1, 4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Psalms 2:1』<sup>1</sup> *Why do the heathen rage, and the people imagine a vain thing?*

『시편 2:1』<sup>1</sup>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격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Psalms 2:4』<sup>4</sup> *He that sitteth in the heavens shall laugh: the Lord shall have them in derision.*

『시편 2:4』<sup>4</sup>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So, it is the ECLIPTIC CIRCLE that Isaiah 40:22 stresses. 그래서 이사야서 40:22절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황도대의 원입니다.

In other words, it reveals that the constellations on the ecliptic “circle” give the primary message of the redemption story, as I mentioned it in the sermon titled “The Truth about Space.” 다시 말해서, 제가 “우주에 관한 진실”이라는 설교에서 언급한 것 처럼, 이 구절은 황도대의 원에 있는 별자리들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Here, we should realize that the Gospel message cannot be revealed if Isaiah 40:22 is misinterpreted by flat-earthers. 여기서, 강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만일 이사야서 40:22절이 평평지구론자들에게 의해 잘못 해석된다면, 복음의 메세지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In addition, we should notice that the flat earth theory cannot fall out rather unto the furtherance of the Gospel. (Philippians 1:12) 또 우리는 평평지구론은 복음의 촉진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12)

#### 4 When did Antarctica begin to appear on the earth? 남극대륙은 언제 처음 지구에 나타났을까?

The third question is “When did Antarctica begin to appear on the earth?” 셋째 질문은 “남극대륙은 언제 지구에 나타나기 시작했을까?” 입니다.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com, they say, Antarctica separated from South America 35 million years ago. conversation.com에 따르면, 남극대륙은 3천 5백만 년 전에 남아메리카에서 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However, this is not true.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As I said several times before, the age of the earth is 6,000 years old. 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지구의 나이는 6천 년입니다.

If so, did Antarctica exist when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6,000 years ago?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6천 년 전에 창조하셨을 때 남극대륙이 존재했을까요?

No. 아닙니다.

Let's read Genesis 1:9,10. 창세기 1:9,10절을 읽겠습니다.

『Genesis 1:9-10』<sup>9</sup> *And God said, Let the waters under the heaven be gathered together unto one place, and let the dry [land] appear: and it was so.* <sup>10</sup> *And God called the dry [land] Earth; and the gathering together of the waters called he Seas: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창세기 1:9-10』<sup>9</sup>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sup>10</sup>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As such, there was only one land mass or one super-continent on the earth when God created the Earth on the third day of creation.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셋째 날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땅 덩어리, 즉 거대한 한 대륙만이 있었습니다.



In other words, continents were not divided initially.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대륙들이 나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Let's continue to read Genesis 10:25. 계속해서 창세기 10:25절을 읽겠습니다.

『Genesis 10:25』<sup>25</sup> *And unto Eber were born two sons: the name of one [was] Peleg; for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and his brother's name [was] Joktan.*

『창세기 10:25』<sup>25</sup>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욥단이었는데

As such, the land was divided in the age when Peleg lived. 이같이, 땅은 벨렉이 살던 시대에 나뉘었습니다.

By the way, the Strong's Hebrew for the word "Peleg" is Peleg which means earthquake. 한편, "벨렉"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스트롱 히브리어는 Peleg으로 지진을 뜻합니다.

And the Strong's Hebrew for the word "divided" is "palag" which has almost the same meaning as Peleg. 그리고 "나뉘다"라는 단어의 스트롱 히브리어는 "palag"으로 벨렉과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So, any continental separation seemed to occur during the Flood of Noah which was catastrophic beyond comprehension. 그래서, 모든 대륙 분할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 노아의 홍수 동안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And each seven continent was settled at its current position in the days of Peleg. 그리고 일곱 대륙은 벨렉 시대에 현재 위치에 정착되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biblical chronology as deduced by Archbishop Ussher, the Flood of Noah occurred in 2349-2348 BC, and Peleg was born in 2247 BC about a hundred years later. 위씨 대주교가 추론한 성경연대기에 따르면, 노아의 홍수는 기원전 2349-2348년에 일어났고, 벨렉은 약 100년 후인 기원전 2247년에 태어났습니다.

Thus, Antarctica was thought to appear on the earth around 4,000 or 4,200 years ago. 그래서, 남극대륙은 약 4천 년 혹은 4천 2백 년 전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Here may arise two questions.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The first question: 첫째 질문:

Where is the geographical center of the earth? 지구의 지리적 중심은 어디일까?

According a physicist named Andrew J. Woods, the exact center of the earth, was found to be near Ankara, the present capital of Turkey, at latitude 39° and longitude 34°. 앤드류 우드라는 물리학자에 따르면, 지구의 정 중앙은 북위 39도, 동경 34도에 위치한 터키의 현재 수도인 앙카라 부근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This area is on the same latitude as Mount Ararat and essentially the same longitude as Jerusalem. 이 지역은 아라랏 산과 같은 위도 그리고 예루살렘과 같은 경도에 있습니다.

As you know, Mount Ararat was the resting place of Noah's Ark, and Jerusalem will be the place of Messiah's throne. 아시다시피, 아라랏 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곳이며,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왕좌가 있을 곳입니다.

So, this area deserves the geographical center of the earth. 그래서, 이 지역은 지구의 지리적 중심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The second question: 둘째 질문:

What was the weather of Antarctica when it appeared at its current location? 남극대륙이 현재의 위치에 나타났을 때 날씨는 어땠을까?

An article in the journal Nature proves that Antarctica was once warm enough for rainforest near the South Pole. 네이처 지에 실린 한 논문은 남극대륙이 한 때 남극 부근이 우림지역이 될 만큼 따뜻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Although this article uses evolutionary period of time, it presents that there was a warm period during which Earth had a greenhouse climate and vegetation grew in Antarctica. 이 논문이 진화론적인 시간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지구가 온실 기후를 가졌던 따뜻한 시기가 있었고, 남극대륙에서 채소가 자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In addition, it was reported that dinosaurs fossils were discovered in Antarctica. 또 공룡화석이 남극대륙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보고되었습니다.

So, Antarctica might have been very warm enough for dinosaurs to live on when it appeared around 4,000 or 4,200 years ago. 그래서, 남극대륙은 4천 년 혹은 4천 2백 년 전에 나타났을 때 아마도 공룡이 살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따뜻했을 것입니다.

## 5 Will Antarctica change? 남극대륙은 변화할까?

The fourth and last question is “Will Antarctica change?” 넷째, 마지막 질문은 “남극대륙은 변화할까?” 입니다.

In an article in the journal Nature, authors present two narratives on the future of Antarctica and the Southern Ocean, from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looking back from 2070. 네이처 지에 실린 한 기사에서, 저자는 2070년이 되어 과거를 회상하는 한 관측자의 시각에서 남극대륙과 남쪽 바다의 미래에 대한 두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In the first scenario, greenhouse gas emissions remained unchecked, the climate continued to warm, and the policy response was ineffective; 첫째 시나리오는, 온실가스배출이 관리되지 않고, 기후가 계속 온화해지고,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this had large ramifications in Antarctica and the Southern Ocean, with worldwide impacts. 이 경우 남극대륙과 남쪽 대양에 악영향을 주어 전세계적인 충격을 미쳤습니다.

As such, this article asserts that Antarctica will change. 이 기사는 남극대륙이 변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With that being said, it does not show the exact future of Antarctica according to Scripture. 그렇지만 이 기사는 성경기록에 따른 남극대륙의 정확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Revelation 6:12-17. 요한계시록 6:12-17절을 읽겠습니다.

『Revelation 6:12-17』<sup>12</sup> And I beheld when he had opened the sixth seal, and, lo,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and the sun became black as sackcloth of hair, and the moon became as blood;<sup>13</sup> And the stars of heaven fell unto the earth, even as a fig tree casteth her untimely figs, when she is shaken of a mighty wind.<sup>14</sup> And the heaven departed as a scroll when it is rolled together; and every mountain and island were moved out of their places.<sup>15</sup> And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 great men, and the rich men, and the chief captains, and the mighty men, and every bondman, and every free man, hid themselves in the dens and in the rocks of the mountains;<sup>16</sup> And said to the mountains and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face of him that sitteth on the throne, and from the wrath of the Lamb:<sup>17</sup> For the great day of his wrath is come; and who shall be able to stand?

『요한계시록 6:12-17』<sup>12</sup>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sup>13</sup>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강풍에 흔들릴 때에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sup>14</sup> 하늘은 두루마리가 함께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가며 모든 산과 섬도 그들의 자리에서 옮겨지매<sup>15</sup>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용사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로운 남자가 동굴과 산들의 바위들 속에 숨고<sup>16</sup>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sup>17</sup>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As such, a huge physical change will occur on the earth when the sixth seal is opened after the church is raptured. (v. 12) ( cf. Joel 2:30,31; Matthew 24:29; Isaiah 13:9-11) 이와 같이 교회가 휴거된 후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지구에 거대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엘 2:30,31; 마태복음 24:29; 이사야서 13:9-11)

The sun will become black as sackcloth of hair, and the moon will become as blood, and the stars of heaven will fall unto the earth. (v. 12-13) 태양은 머리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2, 13절)

The cataclysm at this time will be so terrible, and people will ask the mountains and rocks to hide themselves from the wrath of the Lamb. (v. 16) 이 때의 지각의 격변은 너무나 무서워서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자기들을 어린양의 진노에서 숨겨달라고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16절)

Let's continue to read Revelation 11:3,6. 요한계시록 11:3,6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Revelation 11:3』<sup>3</sup> *And I will give [power] unto my two witnesses, and they shall prophesy a thousand two hundred [and] threescore days, clothed in sackcloth.*

『요한계시록 11:3』<sup>3</sup>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대언하리라.

『Revelation 11:6』<sup>6</sup> *These have power to shut heaven, that it rain not in the days of their prophecy: and have power over waters to turn them to blood, and to smite the earth with all plagues, as often as they will.*

『요한계시록 11:6』<sup>6</sup>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Here, two witnesses will prophesy for three point five years. 여기에 보면, 두 증인이 삼년 반에 대해 대언할 것입니다.

They will have power to shut heaven so that it will not rain for 42 months. 그들은 하늘을 닫아 42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권능을 갖게 됩니다.

Let's continue to read Revelation 16:12. 요한계시록 16:12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Revelation 16:12』<sup>12</sup> *And the sixth angel poured out his vial upon the great river Euphrates; and the water thereof was dried up, that the way of the kings of the east might be prepared.*

『요한계시록 16:12』<sup>12</sup> 여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쏟아 부으매 그것의 물이 말라서 동쪽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As such,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the waters of the great river Euphrates will be dried up. 이처럼, 대환란 기간 동안, 큰 강 유프라테스의 물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So, taken together all these things in the book of Revelation,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there will be celestial and hydrological cataclysms in which the enormous amount of water on the earth will be raised above the atmosphere.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 보면, 대환란 기간 동안 하늘과 물의 대격변이 일어나 지구 위의 엄청난 양의 물이 대기 위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As a result, the water canopy above the atmosphere will be restored as before the Flood of Noah. 그 결과 대기 위의 물층이 노아의 홍수 이전과 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Thus, Antarctica will be warm enough for rainforest in Millennial Kingdom following 7 years Tribulation Period. 그렇게 해서, 남극대륙은 칠년환란기에 이어지는 천년왕국에서 우림지역에 되기

에 충분하도록 따뜻해질 것입니다.

## 6 Conclusion 결론

Now, I want to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 Antarctica is not an ice wall, but a continent. 남극대륙은 빙벽이 아니라 대륙입니다.
2. Many flat earth theories rely on false interpretations of Bible verses. 많은 평평지구론자들은 성경구절에 대한 옳지 못한 해석을 믿고 있습니다.
3. Antarctica might have been very warm enough for dinosaurs to live on when it appeared around 4,000 or 4,200 years ago. 남극대륙은 4,000년 혹은 4,200년 전 경 처음 생겼을 때는 아마도 공룡이 살 만큼 아주 온화했을 것입니다.
4. Antarctica will be warm enough for rainforest in Millennial Kingdom following 7 years Tribulation Period. 남극대륙은 칠년환란에 이어지는 천년왕국에서 우림지역이 될 수 있을만큼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John 8:32』<sup>32</sup>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요한복음 8:32』<sup>32</sup>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I earnest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 morning would not be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In Jesus' name I pray. Amen.